



SBS 
magazin
www.sbs.co.kr

20010



22

커버스토리

투명한 햇살같은 여자 명세빈이 4개월 만에 다시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도 청순가련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그녀가 이제 자신의 영역이 무한대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한 연기자로서 서기 위한 발판을 당당하게 굳혀 나가고 있는 그녀가 과연 어떻게 '여장부'를 그려내 경안의 화제로 떠오를지 기대된다.

사진 / 조광희

SBS 대국민 10년 약속 __ 물은 생명이다 04

2001년 SBS 대기획 06

새 프로그램 |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 __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 | 김유식 08

새 프로그램 | 1월에 선보이는 자연 다큐멘터리 3편 __ 그들만의 세계 | 최경, 김정우 14

새 프로그램 | 드라마스페셜 「순자」 __ 순자가 찾아나선 인생의 가치는? | 김대오 16

커버스토리 | 명세빈 __ 이제, 나의 영역은 무한대 | 이지혜 22

새내기 | 소유진 __ 발랄하고 당찬 신세대 26

시선 집중 | 넷 뮤직 2000 본상 수상자들 28

새 프로그램 | 설날 특집극 「먼 길」 __ 훈훈하게 가슴 적시는 부녀의 사랑 32

새 프로그램 | 오픈 드라마 「남과 여」 __ 남녀에 관한 일상을 오픈한다 | 김진희 34

새 프로그램 | 신년특집 「미국문화 대탐험」 __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을 나라 | 서유정, 송영재 38

라디오 세상 | 「허수경의 러브러브」 __ 정오에 찾아가는 휴식같은 시간 | 김윤희 42

라디오 세상 | 「최화정의 파워타임」 __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상큼한 방송 | 박현주 43

클릭! 인터넷 44

TV & RADIO 편성표 46

SBS 영화 특급 50

마음으로 읽는 공간 __ 누가 노인을 늙었다고 했는가? | 유영미 51



16



34

SBS 대국민 10년 약속

‘물은 생명이다’

새 천년의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는 또 한 해.
태양은 언제나처럼 떠오르건만
우리는 매년 첫 아침,
희망을 담은 새로움으로
그 태양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의지를 주는 것은
바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자연 또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요, 생명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변해가고 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SBS는 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라 생각하고
대국민 10년 약속인
‘물은 생명이다’ 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는 자연과 환경을 중시함으로써
생명의 고귀함과 존엄성을
재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SBS는 앞으로 10년 동안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물을 통한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

- 서스테닝 프로그램 「물은 생명이다」 정규 편성
- '한강을 살립니다' 캠페인 전개 및 프로그램 제작
- 해외 특집 다큐 「세계의 상수원을 지키는 사람」을 통해 물에 대한 관심 유도
- 「SBS 8 뉴스」에 고정 기획물 신설, 기동취재 강화, 환경단체와 시청자 고발을 뉴스에 활용
- 지역 네트워크사와 협력 전국 각지의 환경 관련 기획 아이템 보도 강화
- 2부작 특집 다큐 「물은 생명이다」를 제작, 「뉴스 추적」에 환경문제 반영
- 그린 비전 콘서트 개최
- 물을 소재로 한 계기성 특집 드라마 제작
- 라디오 1분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를 매일 5회 방송
- 전국 5개 도시에서 대대적인 환경콘서트와 다양한 이벤트 행사 개최

2001년 SBS 대기획

1 SBS 대국민 10년 약속 '물은 생명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환경과 자연을 중시하는 SBS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겠다는 공익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따라 서스테닝(Sustaining) 프로그램 「물은 생명이다」를 정규 편성하며 해외 다큐 「세계의 상수원을 지키는 사람들, 그린비전 콘서트, 10년의 약속 「한강을 살립니다」, 특집 드라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물 관련 기획물을 「SBS 8 뉴스」에 고정 편성하며, 환경부와 공동으로 「물은 생명이다」를 소재로 한 연중 캠페인을 제작, 방송한다.

2 새로운 시각의 대하 드라마 「여인천하」, 「대망」

2월에 방송될 「여인천하」는 첩의 딸로 태어나 시대의 운명에 맞서 처절하게 살다간 정난정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현대적 시각에서 재해석한 드라마로 아사의 재미와 전통 사극의 스케일을 조화시킨다. 사극의 거장 김재형 프로듀서가 연출을 맡고, 「임꺽정」의 유동윤 작가가 대본을 쓴다.

「모래시계」의 명콤비, 김종학 프로듀서와 송지나 작가가 선보일 「대망」은 조선 중기 경제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경제인상을 제시한다. 「대망」은 정치에 휘둘리며 힘들게 살아가지만 끈근하게 삶을 이어오는 우리네 이야기를 담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에 긍지를 느끼며 도전적인 꿈을 꾸게 한다.

3 21세기 미래 대기획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21세기 첫 해를 맞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창사 특집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현존하는 음식과 건강에 관한 전문가, 각종 서적 저술가, 각국의 음식문화를 집대성하여 올바른 음식문화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초의 TV프로그램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인간의 입에 음식물이 들어가 배설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부분별로 나누어 집중 탐구하며 우리가 소홀히 해온 음식에 관한 예절과 도에 관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사회학적 접근과 함께 과도한 섭취와 탐욕이 부르는 부패와 질병의 상관 관계를

검증해 간다. 또한 음식을 둘러싼 남녀 불평등의 문화도 짚어본다.

4 HDTV 방송 본격 실시



2002년 HDTV 방송을 앞두고 국내 최초로 스포츠중계를 HDTV로 생방송하며 본격적인 데이터 방송도 준비한다. 특히 HDTV 특집 다큐멘터리 「푸른 바다, 숨비소리-해녀」와 「미국 문화 대탐험」을 제작, 방송할 예정이다.

「푸른 바다, 숨비소리-해녀」는 우리네 해녀들의 삶과 그들이 일구는 바다 속 비경들을 한 눈에 들어오도록 볼거리를 풍성하게 제공하며 수준 높은 수중촬영으로 해양 생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집중 조명해 보일 예정이다. 1월에 방송되는 「미국 문화 대탐험」은 미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5 한국 방문의 해 특집 「세계 불꽃축제」



2001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에 이어 「세계 불꽃 축제」를 한강고수부지에서 개최한다. 작년보다 참가국도 늘려 다양한 모습의 화려한 불꽃을 볼 수 있다.

6 2001 SBS 빅 이벤트 2002 월드컵 페스티벌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앞두고 아시아, 남미, 유럽 예선 등 월드컵 지역 예선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한편, 일본 NTV와 공동 기획으로 월드컵 주경기장에서 한·일 대형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한·일 우정 콘서트를 마련한다.

새롭게 맞이하는 올 한 해에도 SBS는 참신하고 다양한 기획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온 SBS의 2001년 대기획을 소개합니다.

7 자연 다큐멘터리 시리즈 제작

「자연으로 돌아간 반달곰」

반세기전만 해도 우리 산하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반달가슴곰. 그러나 반달가슴곰을 비롯한 야생동물은 이미 멸종된 상태다. 야생동물이 멸종되기는 쉬워도 복원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감안, 반달가슴곰의 방사사업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환경정책의 새로운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또한 새로 태어날 4마리의 반달가슴곰을 집중 취재, 방사에서부터 적응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선보인다.

「서울의 밤, 그 속의 야성」

콘크리트 도시의 틈바구니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야생동물들의 세계를 밀착 취재해 선보인다. 주택가 하수구에서 쥐를 찾아 헤매는 족제비, 봉천동 골재 야적장 속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고 있는 너구리, 지하철 교각 틈바구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박쥐 등 우리 주변에 서식하는 예상치 못했던 야생동물의 세계를 카메라가 찾아 간다.

「문어의 모성」

푸른 바다 속, 사람이 끼어들지 못하는 바로 그곳에 어떤 생명체보다도 진한 모성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문어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한낱 미물인 문어가 보여주는 새끼에 대한 그 처절한 사랑, 목숨을 거는 문어의 모성애를 통해 점차 퇴색해 가는 자식과 부모간의 정, 가족의 의미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까치의 반란」



예부터 길조로 알려져 우리에게 반가움을 상징했던 까치. 그러나 더 이상 까치는 반가움을 상징하는 새가 아닌 흉조로 전락해 본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농작물에 입

을 대고 음식쓰레기를 탐하기 때문이다.

이에 까치의 현재 생태를 담으면서 그들의 먹이사슬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 까치의 달라진 이미지를 통해 인간이 자연의 생명체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되짚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고궁의 야생동물」

매연으로 가득찬 서울 도심 한복판의 고궁들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태계를 유지하며 호흡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오목눈이, 까치, 왜가리, 소쩍새 등 고궁의 주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한 이들의 삶을 집중 조명한다. 이와 함께 이곳에서의 먹이사슬과 각종 생명체들의 생존투쟁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달터 공원 버섯이야기」

서울의 도시 환경문제를 버섯을 통해 새롭게 접근해 이를 집중 조명해 본다. 신년 특집으로 방송된다.

8 디지털시대의 휴머니즘

강원도 오지 마을 네 가구의 겨울나기를 소개하는 가정의 날 특집 「팔발 무기 마을의 겨울나기」와 사라져 가는 효자들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설날 특집 「효자열전」을 통해 21세기 디지털시대에도 변치 않을 가족상을 제시한다.

9 새로운 남북 화해 시대를 연다

2000년 국내 최초로 북한 현지 생방송을 진행한 SBS는 2001년도 새로운 남북 화해시대를 여는데 힘을 기울인다. 그 일환으로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한반도→연해주→시베리아→중앙아시아→동유럽→독일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를 다큐멘터리로 구성한 특집 다큐 「철의 실크로드 대탐험 - 서울에서 베를린까지」를 제작한다. 서울에서 베를린까지 로드 다큐 형식으로 제작될 「철의 실크로드 대탐험」은 우리의 역사적 발자취를 돌아보고 대륙횡단의 이색체험 등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의 중심이 될 한반도의 21세기 새로운 코리아 드림을 계획한다.

10 열린 TV - 시청자가 주인입니다

시청자와 함께 호흡하는 열린 TV를 지향하며 시청자주권시대를 맞아 시청자 참여를 확대한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60리 캠코더를 활용한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의 영상물을 모아 「VJ 영상 대축제」를 개최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청자 트렌드조사를 한다. SBS에 「시청자의 견을 들읍시다」 사이트를 개설하는 한편, SBS를 활용하여 시청자 형태조사,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 시청자층 분석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의 드라마가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윤택한 삶을 많이 다루어온 경향이 있는데 반해 등 따습고 배 부른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지만 왠지 뒤 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가 바로 「그래도 사랑해」이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다. 그녀는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할 수 없는 것을 한다. 그녀는 현실의 나를 보지 않고, 나의 뒤에 있는 나를 그리워한다. 그녀는 외로움의 무게를 이제 버리고, 끝없는 미의 의식을 헤매 다닌다.”

일본의 시인이며 조각가였던 고타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정신 이상에 걸리자 그녀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내가 비록 정신 이상에 걸렸지만 ‘그래도 사랑한다’는 말을 남겼다. 비정상적인 것까지도 감싸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좋은 드라마

새 SBS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는 바로 이런 사랑을 담고 있는 드라마다. 아침드라마 「만남」, 「엄마의 딸」, 주말극장 「이웃집 여자」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 호흡을 맞춘다는 허용 프로듀서와 허숙 작가는 드라마를 만들 때마다 무언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한다. 시청률에 연연하는 드라마보다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자는 것. 그래서 처음 새 SBS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를 기획할 때도 그런 원칙 하에서 준비했다.

“상업방송에서 시청률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좋은 드라마를 만들면 시청률도 따라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프로그램 |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랑

극본/허숙, 연출/허웅, 1월 6일부터 토, 일요일 밤 8시 50분 방송



사실 기존의 드라마에서는 어떤 상황을 과장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웬만한 이야기거리로는 사람들을 자극하고 감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지만,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랄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의 과장된 반응은 철저히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드라마가 사회의 일부 계층에서만 누릴 수 있는 윤택한 삶을 많이 다루어온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허웅 프로듀서는, 그런 경향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삶을 대리만족 시켜주는 장점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사회 발전에 암적인 존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등 떠슴고 배 부른 사람들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정상적으로 살지만 웬지 뒤 처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랑한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해」 역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미지 변신에 도전하는 명세빈

지방 소도시에서 아버지를 도와 설비일을 하고 있는 순미(명세빈 분)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대학에 가지 못했지만 명랑하고 씩씩한 여장부형 아가씨. 능력 없고 고지식한 아버지를 구박하는 어머니(반효정 분)한테, 다른 형제들에 비해 좀 모자라다는 이유로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던 순미는, 갑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아버지가 하시던 일의 마무리 때문에 뛰여 다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런 순미에 비해서, 어렸을 때부터 총명함으로 어머니에게 거의 신적인 존재로 대접을 받던 오빠 수재(황인성 분)는 아버지의 장례식 후, 사랑했던 경화(홍리나 분)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국영(이진우 분)과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진다. 어머니는 이게 모두 가진 것 없고 배경이 없기 때문이라며 수재와 순미의



「그래도 사랑해」에는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다. 순미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기현 역의 박상원, 순미의 오빠이자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에게 빼앗기는 수재 역의 황인성. 그리고 수재의 첫 사랑이면서 결혼 후에도 남편과 수재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화 역의 홍리나, 이들의 연기가 드라마를 더욱 탄탄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여동생 혜미(김재인 분)의 출세를 위해서 서울로 이사한다.

“약간 거친듯한 성격의 순미는 기존의 제 이미지와 정반대인 역할이에요. 물론 얼마 전 드라마에서 공주병 이미지로 변신을 좀 해봤지만, 그래도 명세빈 하면 순수하면서 좀 어린 듯한 그런 이미지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처음 순미 역을 제의 받았을 때 너무 신났었는데, 막상 연기를 하려니까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지난 99년 여름, 「고스트」 이후 SBS에 1년 6개월 만의 출연이라는 명세빈은 순미의 모델로 단 순히 역척스런 ‘여성’이 아니라, 잔머리 굴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했다고 한다. 촬영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장면이 몇 개 있었는데, 아무래도 어설픔게 보일 것 같아서 그림자로 대신 촬영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는 그녀. 그녀는 그녀 자신이 그녀의 연기를 봤을 때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기가 되고 싶다고 한다.

오랜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

한편, 순미 아버지의 친구인 박회장(이순재 분)은 독선적인 성격 때문에 부인 김여사(박원숙 분)와 이혼하고 서로 남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자유인 기철이 강한 큰아들 기현(박상원 분)을 결혼시키고 싶다는 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사랑도, 세속적 명예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고 믿는 기현은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사업체를 물려받아 경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영은 동생 기철(홍일권 분)이 하고 있는 상태. 돌아가신 순미 아버지의 부탁으로 서울에 올라



허웅 프로듀서가 말하는 「그래도 사랑해」 |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드라마”

허숙 작가와는 유난히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던데... “저와 허숙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일치해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인간들의 모습을 가장 솔직하게 볼 수 있는지, 몇 번의 작업을 같이 하면서 깨닫게 되었거든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의 서민들. 저 역시도 서민 중의 한 명이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이 저와 허숙 작가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인 순미 역을 명세빈이 맡았는데... “의외라는 반응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명세빈 이미지는 굉장히 순수하면서 어린 이미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명세빈의 이미지 뒷 편에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모습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제 생각은 틀림없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인공 순미 역에는 명세빈이 캐스팅
되어, 「고스트」 이후 1년 6개월 만에
SBS에 출연한다.

순미는 명랑하고 씩씩한 여장부형
아가씨.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생활전선에 서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녀에게 어느 순간 사랑이 찾아오고
그녀를 둘러싼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잔하고 아름답게
극을 전개해 간다.





은 순미가 박희장네 집에서 살게 되자, 기현은 순미에게 호감을 갖게 된다.

“SBS에서는 거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랑해」에서 기현이라는 인물은 자유분방한 로맨티스트라고나 할까요? 맛있는 요리를 만들려면 양념이 골고루 알맞게 들어가야 하듯이, 좋은 드라마가 되기 위해서 선·후배 연기자들과 호흡을 잘 맞춰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해빙」, 「도깨비가 간다」, 그리고 특별 출연한 「백야 3.98」 같은 작품을 통해서 친숙한 박상원 이 기현 역을, 순미의 오빠이자 사랑하는 여자를 친구에게 빼앗기는 수재 역은 황인성이 맡았다.

“지금까지는 주로 여자를 뺀 강한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여자를 빼앗기는데도 강한 역할이라서 매력을 느꼈습니다. 주말 드라마는 처음인데 미니시리즈와는 달리 차근차근 뉘 올라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패션 모델에서 연기자로 변신한 지 7년째가 되어가는데 아직까지는 ‘내 작품이다’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랑해」만큼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싶어요.”

영화와 드라마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황인성은 「지평선 너머」, 「단 한번의 노래」, 「퀸」에 이어서 SBS에는 1년 6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낸다. 패션 모델 출신으로 처음 연기자로 변신했을 때, 너 지금 CF 찍냐?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딱딱했던 그는 이제서야 연기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고 한다.

행복해지려면 사랑을 해라?

이밖에 수재의 첫 사랑이면서 결혼 후에도 남편과 수재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화 역은 최근 4년 동안 주로 시대극이나 사극에서 활동했던 홍리나가 말아 이미지 변신을 꾀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고지순한 고전적 여인상을 보여줬는데, 이번 작품에서 경화 역은 아주 당당하면서도 화려한 캐릭터예요. 사실 이런 역할 제의는 처음 받아봤는데, 이런 역할을 정말 맡고 싶었어요.”

가치의 기준은 관두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고 싶어하는 삶의 모습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비참해지기 보다는 행복해지려는 노력이라.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는 새 SBS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 그렇다. 행복해지려는 노력 속에는 결국 사랑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SBS**

글/김유석 · 자유기고가, 사진/조광희

그들만의 세계

제가 낳은 알을 보호하느라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50일을 버티다 대부분 죽음을 맞는 문어. 인간의 환경파괴로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린 까치. 무심코 지나치는 도심의 고궁 속에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지켜가는 수많은 야생동물들. 이렇게 자연에는 인간 사회와는 또 다른 그들만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

신년특집 자연다큐 「문어의 모정」

연출, 촬영/장원준, 1월 5일 밤 10시 55분 방송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 하지만 바다의 포식자 문어의 경우 앞의 얘기는 완전히 거꾸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 속에서

만나는 한 마리의 문어는 천적이 없을 만큼 강하지만, 어미로서의 문어는 약하다 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바위 숲 깊숙한 곳에 산란을 하는 그 순간부터 어미 문어는 스스로 약자의 길을 택한다. 카멜레온보다도 더 빠르게 몸 색깔을 바꿔내는 보호색이란 장기도, 단번에 바다가재의 예리한 집게발을 무력화시키는 날렵한 사냥술도 무용지물이 된다. 어미는 제가 낳은 알을 끌어안고 앉아 오직 탐욕스런 다른 고기들의 입질로부터 알들을 보호하느라 전전긍궁이다. 그렇게 사는 날이 무려 50일.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어미를 지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알들이 부화해서 어미 품을 떠나는 순간에 대한 희망뿐이다.

그 어미 문어의 알 품기를 지켜보자면 속이 터진다. 한 번에 10만 개는 죽히 될 알을 낳으면서 행여 알 하나를 잃을까 도무지 집 밖으로 거동조차 않는 것이며, 예전 같으면 상대도 안될 놀래미, 자리돔쯤이야 힘찬 8개의 발로 몇 번 씩씩 휘저어주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부화가 끝나고 나서 제 몸 하나는 추스릴 기운은 남겨둬야지 뭐하자고 50일 내내 생으로 굶겠다는 말인가?

우리가 만났던 세 마리의 문어는 모두 어미가 되자마자



죽음을 맞이했다. 그 중 절반 밖에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고 죽어버린 어미 문어의 경우에서, 앞의 의문들이 풀릴지 모르겠다. 어미가 죽고 서너 시간만에 알들은 하얗게 질려 죽어가기 시작했다. 어미가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은 알들에게 숨을 쉴 수 있다는 것과는 마찬가지로였던 것이다.



어미의 존재를 통째로 요구하는 새끼나, 마지막 숨까지도 새끼를 위해 바치는 어미나 미련하고 무모하기론 막상막하인 셈이다.

그런데 막상 문어의 최후를 보고 나서 머리를 스치는 생각. 이 팍팍한 시절에 우리 중 어느 누가 그렇게 무모한 사랑을 택할 수 있을까? 천륜으로 맺어진 자식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그런 끔찍한 뉴스를 그저 혀 끌끌 차는 것으로 봐넘겨버리기도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인데... 자연다큐멘터리를 보는 재미로 치면 훨씬 아기자기한 조연들이 다수 등장하지만(자리돔, 베도라치, 오징어 등) 지루하리만큼 움직임이 없는 ‘못난이’ 문어가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우직하게 ‘뉘즈기만 하는 사랑’이 그만큼 귀한 것이 되버린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신년특집 자연다큐 「까치의 반란」

연출/정병욱, 촬영/임완호, 1월 6일 10시 50분 방송

언제부턴가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천덕꾸러기가 돼버린 새가 있다. 녀석은 날아다니는 모습이 제법 멋지기도 하고, 흑백의 조화로 강렬한 인상을 준다. 울음소리는 또 크고 우



렁차다. 녀석이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 자라서인지 아침에 눈을 뜰 무렵, 녀석이 울어대면 본능적으로 은근슬쩍 하루를 기대하

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다. 하지만 녀석이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장난의 도를 넘어서 알뜰기까지 하다. 그래서 녀석을 보면, 묘한 감정이 생긴다. 자신도 모르게 반갑다가도 귀찮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는 새, 바로 까치다.

까치를 자연다큐멘터리의 주인공으로 삼으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해야 했다. 이미 까치는 유해조수로 취급되고 있는데, 총으로 뽕뽕 쏘아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자연다큐멘터리다운 것인가, 아니면 까치의 생태와 습관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낼 것인가. 태어나면서 새끼까치가 성조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녀석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여운지, 얼마나 힘겨운 모험과 치열한 생존 투쟁 속에서 살아남는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둥지에서 벗어나 혼자서 헤매기도 하고,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아니면 둥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태풍 때문에 죽어가기도 한다.

이런 모습만 그리면 농촌에서 직접 피해를 겪는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까치를 퇴치하는 모습이 분명 나쁘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독수리의 머리꼭대기에 올라앉아 놀려대고, 압전하고 순한 토끼 엉덩이를 쭈서대며 털을 뽑고,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싸움박질하는 까치의 행동이 도저히 가만둬서는 안될 '반란'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과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까치의 반란」에서는 이 고민들이 그대로 녹아 있다. 분명한 것은 까치가 스스로 원해서 잘 익은 1등급 과일만 골라 파먹고, 비닐하우스로 들어가 밭을 파헤치고, 전선을 합선시키는 '유해조수'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까치가 오늘날 최대의 부흥기를 맞이한 것은 천적을 사라지게 하고, 까치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 참개구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환경을 파괴시킨 '인간'의 조화 속이었다. 까치는 단지 변해버린 환경에 맞춰서 성공적으로 적응했을 뿐이다.

결국 인간이 손을 쓰지 않는 한, '까치의 반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지난 봄부터 8개월 동안 주인공 까치들을 들여다 보면서 취재팀이 내린 결론이다.

설날특집 자연다큐 「고궁의 야생동물」

연출/정병욱, 촬영/서일성, 1월 25일 아침 8시 30분 방송

누구나 한 번쯤은 고궁에 가봤을 것이다. 복잡한 서울 대도시 한복판에 섬처럼 고립된 고궁. 옛 영화를 뒤로하고 고즈넉하게 자리잡은 고궁에서 현대의 사람들은 각박해진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곳에 32중에 달하는 야생조류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창경궁과 종묘에 너구리 가족들이 대를 이어 살고 있는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도 없을 것이다.

자연다큐 팀이 창경궁과 경복궁, 종묘와 덕수궁을 포인트로 삼아 고궁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기로 했을 때에도 실제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창경궁 춘당지에서 짝도 없이 홀로 날아와 텃새가 된 왜가리와 원앙이 가족, 청둥오리 가족을 만났고, 숲 속에서 소쩍새와 오목눈이, 피꼬리, 오색딱따구리 그리고 다람쥐와 너구리를 만났다. 여름이면 물총새와 해오라기도 찾아와 사냥솜씨를 뽐내고, 왜가리와 청둥오리가 연못에서 기세싸움을 펼치기도 한다. 창경궁은 주변에 창덕궁과 종묘로 이어진 생태공간이 다른 곳에 비해 넓기 때문인지 가장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고궁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동물들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며, 우리가 잊고 있는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일러주고 있다.

그 옛날, 여우가 나타나고 호랑이가 나타나 비상이 걸렸었던 궁궐. 지금은 기껏해야 청설모가 누비고 다니며 감서리를 하고, 너구리들이 사람들이 흘린 음식 부스러기를 주워먹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곳이지만, 척박하고 황량한 도시 한 편에서 작은 생명들이 뿌리 내리고 살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고궁은 도시인들에게 청량제 같은 곳이 아닐까. **SBS**



글/최경, 김정우 · 방송작가

순자가 찾아나선 인생의 가치는?

무명의 한 신인이 스타가
되기까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배신. 거기에는 결국
삶의 고귀한 가치를 생각해
하는 진지함이 스며 있다.
성공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버리고 자신의 영혼을
팔아가면서 얻은 부와 명성이
결국은 모두 허무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드라마가
바로 「순자」다.



극본/고동률, 전태영, 연출/문정수
1월 10일부터 수, 목요일 밤 9시 55분 방송



이 드라마가 뜬다면 그 일등공신은 아무래도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 때문일 것이다. 요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세련된 이름을 마다하고 80년대 초 암울한 뒷골목에서 그렇게도 놀려먹던(?) '순자'라는 주인공 이름이 촌스럽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순자」라는 제목을 몇번씩 입안에서 굴리다 보면 참으로 멋진 이름이라는 생각에 무릎을 탁 치게 만든다. 이 드라마가 내놓고 싶은 주제나 주인공의 성격 그리고 펼쳐질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가슴에 와 닿는 이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인생의 고귀한 가치는 결국 진실뿐

이 드라마는 무명의 한 신인이 스타가 되기까지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배신을 그리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조금은 화려해 보이는 연예계와 순자의 고향인 시골 장터 순대국집을 배경으로 한 가족들의 순박한 삶을 번갈아 보여주며 삶의 고귀한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주인공인 순자(이지현 분)와 정윤수(정찬 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배신을 기본 골격으로, 시들어가는 대스타 황승리(정애리 분), 순자를 시골 순대국집 딸에서 대스타 김유희로 변신케 하는 엘리베이터가 돼주는 재벌 아들이면서 화가인 민혁주(정보석 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이자 연예계의 숨은 실력자인 피엘 장(김병기 분)을 중심으로 한 인물간의 갈등과 함께 순자의 부모인 고창택(윤여정 분), 김춘식(양택조 분)과 나불이(김형자)를 중심으로 한 시골 이야기가 펼쳐진다.

가난 때문에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타고난 미모와 야무진 성격을 가진 김순자. 착한 시골청년 정윤수와 사랑을 나누다 스타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가출을 한다. 대여배우 황승리와 피엘 장의 도움과 함께 성공을 위해 사랑을 거래(?)하게 되는 화가 민혁주를 발판으로 대스타가 된다. 이처럼 순자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이나 사랑을 모두 내던졌기 때문.

자신을 지고지순하게 사랑해 주는 정윤수의 순정마저 남성 취향의 피엘 장에게 소개(?)해 주는 배신도 서슴치 않는다. 김순자의 과거에 대한 '냄새'를 맡은 삼류 연예 주간신문 기자 이기철(명로진 분)의 추적으로 김유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시골까지 내려가 취재를 하던 이기철과 동생 우철이 싸움을 하게 되고 김유희, 아니 김순자의 과거가 주간신문에 실리게 된다. 결국 순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감춰두었던 '진실'을 고백하고 정윤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발버둥친다.

순자가 성공하기까지 '진실'이나 '사랑', '순수' 따위는 없다. 오로지 '성공'에 대한 일념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모두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연예계에서의 성공을 위해 영혼마저 악마에게 팔아넘긴 순자에게 남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된 사랑'이었다.

문정수 프로듀서가 말하는 「순자」 “성공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이야기”

이 작품의 기획의도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과연 그 소중한 것을 지켜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었다. 두 남녀가 성공을 위해 '순수한 사랑'을 버리고, 변질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시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배경을 연예계와 시골장터로 나누고 있는데...

도시와 시골의 정서를 대비시켜 화려한 곳이나 화려하지 않은 곳이나 인생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10~20대를 겨냥해 트렌디 드라마 식의 연출은 하지 않겠다. 소박하고 정직한 연출을 통해 순수한 사랑과 인생의 가치를 진진하게 그릴 예정이다.





트렌디 드라마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입맛을 어떻게 돋굴지가 이 드라마 성공의 관건. 하지만 연출을 맡고 있는 문정수 프로듀서는 “트렌디 드라마로 만들려고 했다면 더 재미있었을 것. 하지만 우리 사회를 지탱시켜주고 있는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싶다”라고 밝히는데 그런 욕심을 듣고 나면 ‘트렌디’라는 형식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담기란 손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중견 연기자들의 빛나는 연기

요즘 드라마들은 연기력을 갖춘 중견 연기자보다 신세대 스타를 전면에 내세우는 추세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신세대 스타를 찾아본다면 영화 「미인」을 통해 데뷔해 순자 역으로 캐스팅된 이지현 정도다.

황승리 역을 맡은 진짜 ‘왕년의 스타’ 정애리를 비롯해 민혁주 역에 정보석, 남성 취향을 지닌 연예계의 숨은 실력자 피엘 장 역에는 김병기, 여기에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푸근한 연기를 펼칠 고창택의 윤여정을 비롯해 양택조, 김형자 등도 눈에 띄는 중견 연기자들. 특히 기대되는 것은 시골 장터에서 순대국을 팔면서 서로 ‘원조’라고 우기며 하루도 쉬지 않고 티격태격의 연속인 고창택과 나불이의 걸죽한 연기다.

여기에 드라마의 기동 줄거리를 이끌어 갈 이지현과 정찬의 연기도 기대된다. 이지현은 아예 대본을 외워 연기를 하고 있다는 후문. 촬영장에 대본을 들고 나오지

주인공인 순자가 성공하기까지 ‘진실’이나 ‘사랑’, ‘순수’ 따위는 없다. 오로지 ‘성공’에 대한 일념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생의 고귀한 가치를 모두 버릴 수는 없는 법이다. 연예계에서의 성공을 위해 영혼마저 악마에게 팔아넘긴 순자에게 남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진실된 사랑’이었다.





않을 정도다. 한 번은 상대역인 정찬이 대사를 잊어먹자 옆에 있던 이지현이 정찬의 대사를 그대로 외워주더라는 것. 자신의 대사는 물론 상대역의 대사까지 외울 정도로 이지현의 의욕은 대단하다.

이런 의욕은 지금까지 줄곧 '착한 남자' 역만을 맡아온 정찬 역시 마찬가지. "착한 배역은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지만 하와이 여행 중 문정수 프로듀서로부터 출연 제의를 받고 곧바로 귀국했을 정도로 이번 드라마에 거는 정찬의 기대는 대단하다.

드라마의 본 즐거리와는 관계없이 펼쳐질 피엘 장과 정윤수간의 동성간의 애정표현이 어떻게 그려질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문정수 프로듀서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있다. 상황 전개상 그런 느낌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몇몇 극 중 상황이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좀처럼 표현할 수 없었던 장면이 등장하겠지만 그런 장면들을 치장하거나 전면내 내세울 생각은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순자를 연예계에서 떠나게 했는가?

과거 몇몇 드라마에서 연예계와 스타의 성공스토리를 소재로 삼았지만 가까이에서 연예계를 지켜볼 수 있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했다. 물론 이 드라마가 '연예계에 대한 해부'를 전면내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어떻게 그려나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 하나. 「순자」라는 제목에 약간의 사족을 단다면 '무엇이 순자를 연예계에서 떠나게 했는가'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 해답은 바로 자신이 성공을 위해 내버린 순수한 사랑과 인생에 대한 고귀한 가치이지 않을까? **SBS**

요즘의 드라마들이 신세대 스타를 전면내 내세우는 추세인데 반해 이 드라마에서 신세대 스타를 찾아본다면 영화 「미인」을 통해 데뷔해 순자 역으로 캐스팅된 이지현 정도다. 황승리 역을 맡은 정애리를 비롯해 민혁주 역에 정보석, 피엘 장 역에는 김병기, 여기에 시골 장터를 배경으로 푸근한 연기를 펼칠 고창덕의 윤여정을 비롯해 양택조, 김형자 등도 눈에 띄는 중견 연기자들이다.

커버스토리 | 명세빈

이제, 나의 영역은 무한대



푸 른 잔디밭에 누워 가만히 눈 감고 있노라면 조용조용 다가와 우리의 눈꺼풀을 간질이는, 노랗고 투명한 햇살같은 여자 명세린이 4개월 만에 다시 브라운관에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여름 맥라이언 못지않은 귀엽고 섹시한 이미지로 세간에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더니, 이번엔 SBS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에서 여장부 스타일의 터프 걸로 주말마다 안방을 사로잡겠다고 한다. 한 동안 못 남성들의 보호본능을 무한히 자극하며 청순 가련한 이미지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던 그녀의 변신은 무죄? 가녀린 들꽃에서, 요염한 장미로 거듭 태어났다가 이젠 자신의 영역이 무한대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진정한 연기자로 서기 위한 발판을 당당하게 굳혀 나가고 있는 그녀가 과연 어떻게 '여장부'를 그려내 장안의 화제로 떠오를지 기대된다.

연기란 타인의 삶을 살아 보는 것

길을 걷고 있던 중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 왔다. 조심스럽게 뮤직 비디오에 출연하지 않겠냐는 제의를 해온 것이다. 그것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의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던 그녀에게 새로운 세상이 말을 걸어 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다.



사람들이 짙어진 삶에 다음 순서가 척척 진행된다면, 인생은 얼마나 편리하고 살만한 것일까. 하지만 무작정 편안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매 순간마다 자기 자신을 몽땅 쏟아 부어야 할 테니까. 평범하게 살고 있던 그녀가 뮤직 비디오를 찍고 나자 생각지도 못한 다음 순서가 걸잡을 수 없이 불거져 나왔다. 잡지 모델이 되었고, 곧 바로 CF 모델 제의가 들어온 것이다. 사람들의 눈시울을 촉촉히 적셨던 과자 CF였다. 그녀는 백혈병에 걸린 소녀를 연출하기 위해 과감하게 머리를 잘랐다. 잘랐다가 보다는 밀어 버렸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 머리를 잘라 버리던 순간, 당시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 별다른 감흥은 없었다. 오히려 늘 긴 머리였던 것을 이 기회에 한번 시원하게 잘라 보자고 생각했다. 특별히 연기자가 되겠다는 계획은 없었지만, 이렇게 그녀는 점점 연기자의 길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했던 그녀가 드라마 「순수」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과분한 행운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더욱 노력하고 있다.

“연기란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드라마를 시작할 땐 힘들고 쉽게 지치기도 했는데, 이젠 그 묘미를 알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드라마를 찍고 있는 동안에는 그 캐릭터에 맞게 제 성격이나 취향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인생을 살다 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지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나 를 지켜야겠다는 고집이 생겨요. 내가 존재해야 드라마 속의 주인공도 있는 거니까요.”

어릴 적 그녀는 남자 아이들과 신나게 어울려 놀기 좋아하는 장난기 다분한 귀여운 아이였다. 치과를 많이 다니다 보니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멋지게 보여 치과 의사가 되어야겠다는 아무진 꿈을 꾸기도 했던 씩씩한 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여성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면이 생기면서 혼자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소녀가 된 것이다. 최근까지 보여준 청순한 이미지는 모두 그때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성격은 변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아직도 어린 시절 품었던 요소들이 남아 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시기가 오면 불쑥불쑥 나타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녀의 연기를 보면서 꼭 빠져들 정도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다는 것. 그런 그녀가 이번에는 어떻게 드라마 「그래도 사랑해」에서 ‘여장부’를 그려낼지 기대된다.

시청자와 함께 하는 연기자

본격적으로 연기에 대한 깊이의 필요성을 갖게 한 드라마로 그녀는 「고스트」를 꼽는다. 당시의 감독님과 연기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눈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뜨거운 것이 좋아」에 이어 새해 1월 3일 방영을 시작하는 드라마 「그래도 사랑해」 또한 그녀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된다. 그녀 스스로도 이번 드라마 속의 주인공 ‘오순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선머슴처럼 머리도 자르고, 화장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게다가 생전 싸우며 살아본 적 없는 그녀는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아무렇게나 싸우기도 하는 ‘오순미’에게 갈수록 깊은 애착이 생겨나고 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낯설기는 하지만 후련하고



결속한 맛을 안겨주는 재미가 있어, 열심히 촬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제 연기를 보면서 폭 빠져들 정도로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세상사 저를 보며 편안하게 모두 잊을 수 있다면 저에게는 더 없는 영광일 겁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슬피하고 함께 기뻐하는 연기자가 되고 싶어요.”

드라마, 영화, CF 모델, MC 등 기회가 올 때마다 모두 열심히 소화해 내고 있지만, 역시 그녀는 연기자를 가장 염두에 두고 있다. 드라마가 가장 편안하다. 하지만 편한 길만 갈 수는 없는 법이다. 영화 또한 아직 드라마 보다는 낯설지만 나름대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주인공의 캐릭터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오래 고민하여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그녀의 마음을 끈다. 앞으로 기회가 온다면 코믹 멜로물에서 맥라이언같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SBS**

글/이지혜 · 시인, 사진/조광희

의상협찬/데무, 람브렌트, 비비안 웨스트우드 · 액세서리협찬/스와로브스키



발랄하고 당찬 신세대

환한 미소의 활발함으로 벌써부터 시선을 끄는 탤런트 소유진(19세). ● 현재 「루키」에서 엄순대(유동근 분) 동생인 엄순경으로 출연하는 그녀를 보고 시청자들은 '예뵘다', '신인답지 않다' 고들 한다. ● 이 말은 그만큼 연기가 좋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계열예술고 시절부터 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연극이며 뮤지컬 등을 해온 터라 연기가 낫설지 않다는 것. 또한 근성이 있고 한 번 대본을 보면 상황몰입이 빠르네다가 IQ가 높아(149라고 한다) 대사 또한 빨리 외운다고. ● '99 스포츠투데이 주최 전국 청소년 좋은 복장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난해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소유진은 성격이 좋아 어떤 사람과도 10분 정도면 시귀 정도라고 한다. ● 현재 동국대 연극영상학 부 1학년으로 재학 중인 그녀는 어려서부터 익힌 무용과 가리지 않고 좋아하는 운동으로 균형 잡힌 몸매와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다. ● 자유시간, N-TOP, OK캐쉬백, 파리바게트, 한 게임 닌컴, 버거킹 등 다수의 CF 경력이 있고 「덕이」, 「SBS 최고를 찾아라」 등에서 선을 보인 소유진. 앞으로 생방송의 진행자가 꿈이라는 그녀의 행보를 주시해 본다. 사진/조광희

SBS Net Music 2000 수상에 빛나는 예비스타들

대상 / 신동룡 「이미 시작한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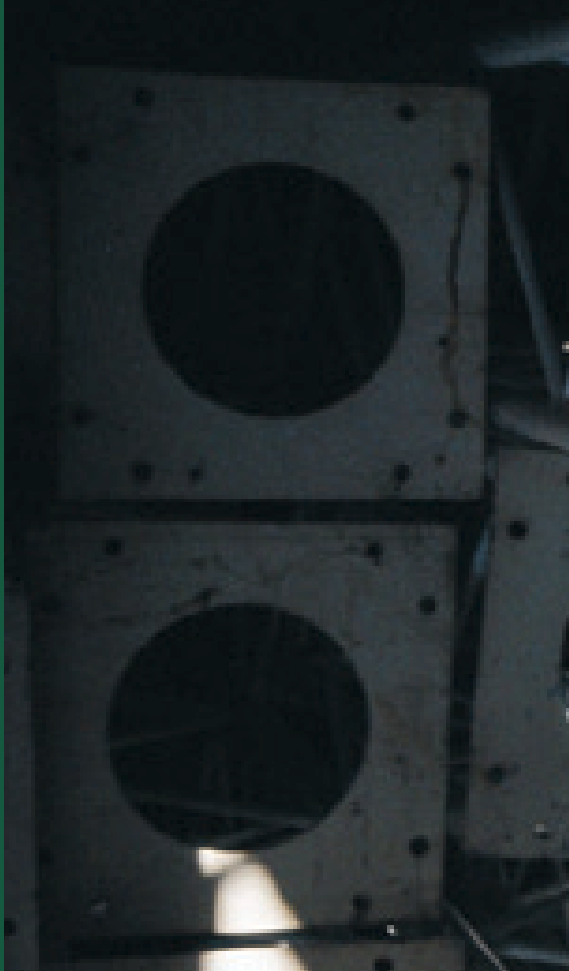
큰 상을 받기도 쑥쓰러워 고개를 못 드는 모습, 사람들의 환호에 얼굴을 붉히는 모습, 성년이 되지 못한 열아홉의 나이에 대상은 너무 벅찰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신동룡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더 이상의 추춤퍼없이 힘찬한 사랑을 시작했다.

이름에 조용히 내리는 안개같은 음울로 다가오는 미성의 목소리. 그의 노래를 듣고 있노라면 차분한 자유에 빠지는 느낌을 준다. 절제된 슬픈 발라드, 여러지만 강한 음색으로 불리워진 '이미 시작된 사랑'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곡이다.

그래서일까, 본 대회에 앞서 실시한 네티즌들의 사전 투표에서 그의 점수는 월등한 수위를 지키고 있었고 적지않은 팬층이 확보되었다. 바로 스타예감의 현상이 아닐 수 없다.

확장 시절 축구선수의 꿈을 키운 적이 있어서일까? 악작같이 자신의 노래에 열정을 아끼지 않는 그의 모습에서 골문을 향해 질주하는 단단함이 발견된다.

그를 만난 많은 사람들이 '될 거 같다' 라는 말을 했듯이 잠재된 가능성이 잘 다듬어져 무한한 스타의 욕동로 새겨질 거 기대한다. 1982년생





김상 / 김동욱 「Cry」

히스키의 매력은 무엇일까? 남성적인 기질고 티프함이 들어 있어서 일까 아니면
에절하게 울부짖는 가련한 때문일까?

김동욱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 탁하지 않으면서
메마르지 않은 입재변과 마이랄 볼튼의 목소리를 섞어 놓은 듯한 독특한 음색,
히스키보이스의 진수, 그것이 김동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오랜 세월 캐나다에서 재즈를 공부하며 살고 닥은 음악의 비탕에 브라이언 맥라이언과
패스웰의 영향을 받아 그의 선친적 자질이 이번 대회에서 꽃을 피운 것이다.

가벼운 음악이 아닌 소울풍 등의 진한 음악이 하고 싶다는 김동욱. 단순히 머리로 하는
음악이 아닌 마음 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진정한 음악을 하는 뮤지션을 기대해본다. 1975년생



동상 / Link 「멜로드라마」

가창력, 인품, 무대매너... 그 어떤 것도 어설프지 않은 박은정.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을 보면서 잠깐, 참석자들은 지금 이무대가 아마추어 경연대회가 아닌 프로들의 콘서트가 아닌가 착각을 할 뻔했다. 그만큼 박은정의 무대는 사람들을 흡수했고 그의 노래와 춤에 취하게 만들었다.

특히 수상자 중 유일한 여자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아마추어로서는 쉽게 소화할 수 없는 라틴풍의 노래를 들고와 당당히 은상을 거머쥐었다.

그 동안 오랜 클럽 디스크자키와 배맨서의 시절을 보내면서 남 모르게 흘린 눈물이 이번 대회로 말끔하게 씻어진 느낌이었고 수상소감을 밝힌 그녀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사랑받는 가수가 되겠다고 한다.

아무리 작은 무대와 역할이라도 열심히 해내고 그 뿌듯함을 즐긴다는 그녀. 단숨히 춤만 추는 비디오 가수가 아닌 가창력으로 승부하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어찌면 당연한 듯 들리기도 한다. 앞으로 그녀의 힘찬 비상을 기대한다. 1979년생





동상 / Link 「멜로드라마」

록의 친하동일, 도무지 상상도 못할 엄청난 포부를 가진 4명의 사나이가 기묘계에 거침없이 도전장을 던졌다.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는 오로지, 가창력과 맘이 전부다. 하지만 본 대회를 지나면서 어찌보면 그들의 꿈이 실현될지도 모른다는 잠깐의 환상에 빠진다. 그만큼 그들의 노래는 진지하고 뛰어나다. 한번만, 들어도 입에 익을 만큼 친숙한 멜로디에 지나치지 않은 절제된 연주실력, 그리고 감성을 울리는 가사...

멤버 모두 워낙 술을 좋아해 자신들의 팀을 Drink라고 불렀다가 D를 빼서 지금의 이름으로 했다는 기쁨은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들은 짙고 폐기있는 4인방의 사나이다.

이미 언더그라운드에서 인정받고 많은 팬을 확보한 그들은, 클럽 연주 400회를 밑거름으로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자신들의 음악이 이 세상에 공기 같은 음악이 되기를...

그들이 열어줄 대한민국 모던록의 새로운 장을 기대해본다.

훈훈하게 가슴 적시는 부녀의 사랑

극본/박정란, 연출/유철용, 1월 21일 밤 9시 50분부터 2부작 방송



설날 특집극으로 방영될 「먼길」은 인간적인 내면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서정적으로 전개된다. 자신의 소망대로 올바르게 자란 딸을 통해 행복을 찾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위해 연극까지 꾸며가며 넉넉한 마음을 채워 주고자 애쓰는 딸. 이들이 보여줄 딸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설 날은 색다른 맛을 준다. 새해를 맞는다는 의미보다는 온 가족이 모인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가족은 힘이 되기도, 힘겹기도 하지만 그 부대낌 속에서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여있음을 느낄 수 있다. 설날특집극 「먼 길」은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이며, 가족이 무엇인가를 뼈 속 깊이 가슴 아리도록 느끼게 해주는 드라마다.

복에 부모를 두고 온 실향민 아버지(남일우 분), 아버지에게는 이 세상을 뜨기 전에 하고 싶은 두 가지 소원이 있다. 그 하나가 하나뿐인 딸 선주(박진희 분)를 시집 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향 땅을 밟고 싶은 것이다. 오래 전에 부인을 잃고 딸만 바라보고 살던 아버지에게 딸이 이번 설날에는 사윗감을 데러오겠노라고 한다. 새로 도배도 하고, 이불도 꿰매고, 사윗감이 좋아한다는 가자미식혜를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가장 맛있는 것으로 얻어 준비한다.

선주 또한 스포츠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기현(소지섭 분)과의 고향니들이 준비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기현은 선주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말과 함께 고향에는 함께 가지 않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다.

선주는 기현에게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제발 가서 인사라도 하고 오자고 애원하지만 끝끝내 기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선주는 배신의 눈물을 흘리며 차표를 찢어버리고 만다. 돌아나오던 선주는 우체국에서 소포 때문에 실강이를 한 적이 있던 우식(이병헌 분)과 예상치 않게 만난다. 고아인 우식은 봉고로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가는 손님들을 모으고 있던 중이었다.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던 선주는 우식에게 자신의 신앙감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전후 사정을 들은 우식은 선뜻 동의한다.

우식을 사윗감으로 안 아버지는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렸노라며 속내를 그냥 내보인다. 우식은 능청스러운 만치 선주의 신앙감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낸다. 우식은 선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지켜보며 몹시 부러워하고 마치 친아버지를 대하듯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선다. 유난히 술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몸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는 우식은 이 사실을 선주에게 알리지만...

인간적인 내면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서정적으로 전개된 「먼길」. 비록 시골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소망대로 올바르게 자란 딸을 통해 행복을 찾는 순간 온갖 시름과 노고를 잊는 아버지. 연세 든 아버지를 위해 연극까지 꾸며가며 넉넉한 마음을 채워 주고자 애쓰는 선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부녀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는 우식.

이들이 보여줄 딸과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을 통해 다시 한 번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길 것이다. **SBS** 사진/서형식

새 프로그램 | 오픈 드라마 「남과 여」



남녀에 관한 일상을 오픈한다

1월 8일부터 월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남과 여. 영원한 동반자이자 끝없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이들의 관계는 실로 복잡하고 오묘하다. 연극, 영화, 시, 소설 등 수많은 소재로 사용돼온 남과 여의 관계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아니, 앞으로도 풀리지 않을 영원한 수수께끼이다.

2000년, 한 해가 졌다. 새 천년을 맞아 대망했던 많은 기대들은 이뤄지지 않았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또 다른 해를 맞아 새로운 일들을 준비해야 한다. TV 드라마도 새로워져야겠다. 이에 SBS가 남다른 형식의 드라마를 마련한다. 월요 오픈 드라마 「남과 여」가 바로 그것.

“오픈 드라마는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남녀 간의 일이라면 무엇이든 소재가 될 수 있고, 형식도 단막이든 4부작이든 내용에 따라 선택될 수 있습니다.”

손홍조, 김종혁, 김진근, 고경희, 이용석, 조남국, 한정환 등 7명의 프로듀서를 진두 지휘하며 드라마를 이끌어 갈 구분근 CP의 설명이다. 이는 소재나 표현형식에 있어 창작자의 최대 자유를 보장해 준다는 소리인데, 작가나 프로듀서로서는 늘 꿈꾸던 바가 아닌가.

이 드라마는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오픈' 되어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소재를 제공해주십시오. 완성된 대본도 괜찮구요. 드라마 방송 후엔 시청 소감과 찬반 토론 참여도 잊지 마시구요.” 다양한 방식으로 시청자들을 드라마 제작에 끌어들여 드라마의 질과 공감대를 한 단계 높여보겠다는 게 바로 구분근 CP의 '오픈' 전략. “여러분의 참여로 이 드라마는 공허한 연애담이 아닌, 일상의 냄새가 묻어나는 바로 내 이야기로 탄생하는 것이죠.” 단, 남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로 소재를 국한한다고 하니, 환경 문제나 정치 문제 등은 잠시 잊어달라고….



4인 4색의 사랑을 담은 4부작으로 시작 _ 극본/김도우, 연출/김종혁

월요 오픈 드라마 「남과 여」를 여는 첫 작품은 김종혁 프로듀서의 4부작이다. 「70분 드라마-사랑한 후에」로 데뷔한 후 일련의 감성 드라마를 섬세하게 연출해온 김종혁 프로듀서. 「70분 드라마」 '토큰 박스', '수취인 없음' 을 함께 만들었던 김도우 작가와 또 다시 호흡을 맞춘다. 전체 드라마의 뚜껑을 여는 오프닝이라는 점이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작품이기에 자신은 있다고 한다.

이번 작품은 일단 독특한 형식으로 눈길을 끈다. 4부작이되 그 한회 한회가 단막극처럼 완결되는 형식. 정말 '오픈 드라마' 다. 이야기의 틈새를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도 준다. 형식 뿐만 아니라 제목 역시 심상치 않다.

제1화 '왜 남자는 어린 여자에게 집착하는가?', 제2화 '사랑에 미치다', 제3화 '친구의 아내를 사랑하다', 제4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한 편만 봐도 재미가 있으나 네 작품을 다 지켜보면 더 큰 재미가 생겨난다.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드라마는 색깔이 다른 4명의 인물들로부터 시작된다. 보건소 치과 의사 이은진(김정은 분), PC방을 운영하는 박정우(김태우 분), 대통령 의전비서 최상현(조민기 분), 연기자 지망생 이해영(김효진 분). 서로 만남의 연이 닿을 것 같지 않은 이들이 얽히고 설키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한다.

이야기를 은진으로부터 시작해보자. 은진이 잠시 외국으로 떠난 사이 약혼자 최상현이 어이없게도 20살의 당돌한 해영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다. 자괴감과 절망감을 느낀 그녀.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제1화). 한편 상현은 천방지축인 해영에게 철저하게 이용만 당하다 버림받고, 해영은 기호(정소영 분)와 지독한 사랑에 빠지면서 사랑의 이면을 경험하게 된다(제2화). 정우 역시 빼 아픈 실연을 당하기는 마





찬가지. 정우는 용기가 없어 대학시절 애인 윤선을 친구에게 빼앗긴 남자. 친구의 아내가 된 그녀를 다시 만나 뒤늦은 사랑의 완성을 꿈꿔보지만, 결국 또 한 번 실연의 깊은 늪에 빠지고 만다(제3화). 결국 사랑에 실패한 두 남녀 정우와 은진이 아픔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지를 조심스레 검토하게 된다(제4화).

아름다운 열정만이 사랑은 아니다. 기만, 이기심, 집착, 상처 등 사랑엔 다양한 이면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사랑으로 상처받고 다시 사랑하지 않을 결심도 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사랑을 구하게 되는 것, 그런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 김종혁 프로듀서의 달변에 홀리다보니 드라마 전체의 색깔을 알 수 있을 것도 같다. 아니다. 그가 완성한 사랑의 퍼즐엔 천변만화의 갖가지 색이 배어 있을 것이다.

다큐적 터치를 강화한 진정한 오픈 드라마

첫 4부작 이후로도 다양한 소재, 특특 튀는 형식의 작품들이 속속 선보일 계획이다. 다큐적 터치를 강화한 드라마라고 말하는 구분근 CP에게 좀더 힌트를 달라고 조르자 “이혼을 포함, 흔들리는 남녀간의 여러 가지 문제적 상황을 집중 조명한 드라마들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물론 그 소재들은 주로 실제 사연으로부터 얻는다고. 또 심야 시간대에 방영된다는 점을 감안, 다소 섹슈얼한 터치도 시도해 볼 작정이라고 한다.

“뻘하고 관습적인 해답을 되풀이하는 대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문제시 되는 남녀간의 모럴을 파헤쳐 시청자들 스스로의 자발적 판단을 유도해 보려 합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제작진들에게 오픈되고 시청자들에게 오픈된, 진정한 새로운 드라마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SBS**

「남과 여」는 우선 형식에서 기존의 드라마와는 전혀 다르다. 소재나 표현형식에 있어 창작자의 최대 자유를 보장해 주고, 프로듀서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도 ‘오픈’되어 있다. 소재 제공은 물론이고 시청 소감과 찬반토론도 언제나 열려 있다. 그래서 공허한 연애담이 아닌, 일상의 냄새가 묻어나는 이야기로 탄생하는 것이다.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을 나라

연출/서유정, 송영재, 1월 중 방송

미국의 힘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분명한 것은 그곳엔 너른 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이 자신의 일을 미친 듯이 즐기는 한 미국은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콜 럼부스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더구나 200년 후 그곳에 새로운 나라가 태어나고 그 신생국이 장차 세계를 주도해 나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불과 백여 년만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기 시작한 미국. 이 신생독립국이 근·현대사 100년을 통해 지구촌의 수장으로 자리매김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우리는 먼저 땅덩어리의 무한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너른 땅만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각 살고 있었다.

문화의 충격! 행위예술가 버닝맨

하나의 문화충격이었다. 꼬박 하루를 들성들성 관목들만 드러난 네바다주 메마른 사막을 달리다가 마침내 모래바람 부는 황무지, '블랙 락 데저트'에 들어섰을 때, 거긴 이미 다른 미국이었다. 우선 눈에 띈 풍경. 그것은 사람들이 오가는 텐트촌 벌판에서 간이 샤워 부스를 틀어 놓고 아무 시선도의 식하지 않은 채, 드러내놓고 샤워를 하는 일단의 남녀들 풍경이었다. 아니 그들의 그런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

도 그들의 그런 모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게 충격이었다. 말로만 듣던 누드, 그 실체를 눈앞에 적나라하게 마주치게 된 것에 호기심 반, 난감함 반에 난처했지만, 그것은 거기서 느낀 느낌들의 작은 시작일 뿐이었다. 2만 7,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축제 참가자 전부가 몰도 전기도 없는 모래 사막 한복판에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느닷없이 불어닥친 태풍에 시달리면서도 뭔가 창조적인 작품과 활동 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예술들을 하는 광경을 상상해 보자. 그것이 '버닝맨'이었다.

미국은 수많은 규제와 경쟁이 일상에 자리한 나라다. 문명대국답게 그들의 행위는 온갖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일례로 네바다주에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뚜껑을 연 맥주캔을 지니고 있으면 위법이다. 그러한 잡다한 규제에 길들여진 보통 미국인들은, 그렇다면 속속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 아닐 것이다. 분명 그들의 마음 어느 구석에서는 이에 대한 반작용, 즉 일탈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일탈의 모습이 아메리카적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취재진은 그것을 보고자 했다. '버닝맨'은

그렇게 해서 찾아진 아이템이었다. 한국인의 윤리적 시각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많은 축제일 것이다. 만일 그러한 축제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 당장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것이다. 당연히 일부 화면은 방송불가이다. 직접 본 모든 것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미국적 다양성을 간접체험으로라도 함께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 편집을 하고 있는 지금 느끼는 곤혹감이다.

자유를 주는 사막의 감옥

화씨 120도. 애리조나 사막 한복판의 텐트에서 느껴지는 실제 온도이다.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 웬 텐트? 그것은 감옥이었다. 감옥이 텐트라니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다. 그런데 피닉스의 마리코파리는 작은 지역에는 실제로 이러한 텐트감옥이 운영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물론 텐트감옥이 건물을 짓는 비용에 비해 훨씬 저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30분의 1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 아니 재소자들의 인권도 지극히 중시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 대답 또한 역시 미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텐트감옥을 큰소리치며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터프한 보안관으로 유명한 죠 아르페이오라는 인물이다. 그는 전형적인 미국 남부 보수계층의 인물이다. 물론 재소자 인권 문제로 인한 일부의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선거로 선출된 그의 인기도는 85 퍼센트를 웃돈다. 미국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지지율이다. 그의 감옥정책은 한마디로 요약된다. 감옥은 불편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짓고서도 편안한 수감생활을 하는 일반 미국의 감옥정책에 그는 반기를 든다. 주민들의 열렬한 환영의 배경에는 물론 경제적인 이유가 숨어 있다. 죄수 한 끼 식사비용이 20여 센트. 감옥의 순찰견 1달러 20센트에 비하면 월등히 싼 가격이다. 우리의 죄수 한 끼 식사비용보다 오히려 싸게 먹힌다. 그러면서도 죄수들의 노동력 제공으로 온갖 기증을 받는다. 따라서 식사의 질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냉방 장치도 없는 텐트에서 사는 문제는? 감옥 밖을 나다니는 차들도 구경하고 밤하늘의 별도 보고, 사막의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그 구멍이 송송난 텐트들은 놀랍게도 우리의 6.25 전쟁 중

사용하던 미군용 텐트들도 섞여 있다. 거기서 그들은 흡연금지 등 정해진 몇 개의 규정만 준수하면 몹시도 자유로웠다. 죄수라니? 우리에게 사막에서 단체 캠핑을 하는 줄무늬 회사원들로 보였다면 과장일까?

거기에서 이 아르페이오란 인물은 감옥의 공개·개방 정책을 펴면서 아예 감옥 내부를 인터넷 웹카메라로 공개해 버렸다. 우린 땀땀하니 얼마든지 와서 구경하라는 것이다. 실제로 취재하는 데에도 시간적인 제약 외에는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논란이 있으면 어쩌랴.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다는 것. 미국 아니까...

갱으로 이루어진 흑인 슬럼가 '와츠'

20여 개의 갱단이 있었다. 만나는 흑인들 거의 모두가 갱단원이었다. 그중 우리가 접촉한 집단은 이름이 'GRAPE STRAIGHT' 라 했다. 700~800명으로 구성된 그들은 자신들의 상징으로 곱슬머리에 파란 빗을 꼽고 다녔다. LA이면서도 LA가 아닌 곳, 흑인 슬럼가 와츠 지역. 신고가 없으면 경찰도 순찰을 돌지 않는 곳. 대낮에도 '드

라이브 쓰루' 라고 하여 차를 타고 가다 낫선자에게 충격을 가하는 곳. LA 흑인 폭동의 근원지, 대낮에도 백인은 커녕 아시안계도 눈에 띄지 않는 그들만의 섬, 흑인 슬럼가 와츠지역의 취재는 시작부터가 난관이었다. 취재 마지막 날은 제작진 도착 바로 직전에 충격전이 벌어져 흑인 1명이 숨진 것도 모른 채 섭의를 하다가 맥주 세례를 받는가 하면, 결국엔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나는 비운(?)을 겪어야 했다. 겨우 한 명을 설득해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간간이 총성이 울리고 있었으니, 과연 미국의 고립된 섬이라 할 만했다. 그들의 갱단이라는 것도 결국엔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책이라는 주장인데, 그러나 와츠의 흑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날 LA타임즈를 펼쳤지만, 기사 어디에도 와츠 지역의 충격전과 사망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박의 왕국, 라스베가스

민거나 말거나, 라스베가스의 일류 호텔에서는 에어컨 장치를 통해 온도 100퍼센트의 산소를 공급, 몇 시간을 달려 온 피곤함이 호텔방에서 서너 시간 선잠을 자기만 해도 매끈하게 풀린다고 한다. 가뻐한 몸으로 더 많은 게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믿음만한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필사의 잠행을 하여-제작진은 값싼 호텔에 묵고 있어서 피곤이 안풀렸음-무사히 에어컨을 켜주는 하였는데, 확인이 안되니...

그 말고도 무수하다. 라스베가스엔 시계가 없다. 바깥의 햇빛은 절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시간차를 느끼면 안되니까. 호텔 로비에는 절대 소파를



갖다 놓지 않는다. 손님은 피곤이 반죽이 되도록 열이 나서 게임을 하는데, 달리는 시간마다, 때로는 30분마다 바뀐다. 항상 컨디션을 유지해야 하니까. 조금 따도 많이 탄 것처럼 느낄 수 있게 슬롯머신의 칩 떨어지는 소리는 요란하다. 슬롯머신에서 손지창 장모 같은 잭팟 확률은? 자신이 탄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보다 낫다. 그래도 이런 라스베가스에서 돈을 벌 생각으로 사람들이 모인다.

라스베가스가 오늘날 같은 세계적 게이밍 왕국으로 자리잡은 데는 물론 다른 이유가 많다. 무엇보다 정부와 주정부의 믿음직한 후원이다. 불법이 들어서지 못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한 규제를 만들었다. 우리가 도박을 웬지 공개시키기 꺼끄러운 은밀한 산업으로 쉬쉬하는 동안, 우리의 관광객들은 라스베가스에 돈을 쏟아 붓는다. 그곳의 한국인들은 달러만 해도 줄 잡아 50명이 넘는다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가 개장됐다. 안하면 모를까,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지...

매니아들이 많은 자동차 나라

빌은 뉴저지 남쪽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하는 평범한

50대 미국인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집을 찾았을 때 빌은 결코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았다. 마치 고물상이나 폐차장 같은 그의 집 차고. 그 속에선 정비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도 50~60년은 족히 지난, 낡을 대로 낡아빠져 차라고 불리기도 어색한 것들만이 자리를 차지한 채로... 빌은 골동품차 수집가이다. 'Antique car'로 불리는 골동품차는 오래돼, 골동품으로 그냥 서 있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것 역시 자동차로서 자신의 생명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진정한 '엔틱카'가 되는 것이다. 빌은 거리를 지날 때 무심히 지나지 않는다. 20년대 T형 포드를 찾고, 40년대의 중후한 뷰익을 찾기 위해 코를 벌름거린다. (코를 벌름거린다는 건 그의 표현이다.) 남의 집 뒷마당에 버려진 채 멈춰선 세월의 흔적을 찾아내어, 갈고 닦고 기름 쳐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빌이 손들고 나선 일 아닌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의 손을 거쳐 재탄생한 차만도 수십 대. 마음에 드는 고물차를 손에 넣기 위해 쏟아붓는 돈도 만만치않지만, 그의 부인도 이전 불평보다 그의 행사를 함께 도와주며 이해하려 노력중이라고 한다.

휴스턴에서 만난 또 다른 자동차광

매트. 그는 스스로를 자동차 아티스트로 불러달라고 한다. 아예 자동차 정비공장을 하면서 어린이가 같은 '천진난만' 속에서 살고 있는 매트는 자신의 표현대로 그의 작업장 안을 '커다란 아이의 커다란 장난감' -Big kid's big toy-들로 가득 채워 놓고 있었다. 물위를 가로지를 것 같은 보트모양의 자동차에서 바퀴벌레모양의 자동차까지, 버려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자동차 범퍼와 보닛을 만들고, 폐차된 승용차의 뒷 트렁크를 떼어내 모던스타일의 소파로 재탄생시키고, 여자친구와의 다툼 후에 하이힐 모양의 오토바이가 새로이 태어나는 곳. 매트가 상상속에서 그려낸 것들은 그의 작업장에서 모두 바퀴 달린 자동차로 만들어져 땅 위를 구르게 된다. 더구나 그의 작업은 녹색운동의 하나로 남들에게 버림받은 것들만 이용해 새 생명을 탄생시키고 있었다. 자동차의 나라 미국, 그곳에서 빌과 매트는 자동차를 화류점정하고 있었다.

남북전쟁이 계속되는 곳

조지아 북부의 턴넬힐에서는 역사를 몸으로 직접 느끼며 살아가는 켄과 그의 동료들을 만났다. 50대 초반의 컴퓨터 전문가, 켄 섬너는 자신이 직접 창설한 40여 명의 남부동맹군 부대원으로 구성된 재현극부대의 캡틴이자 재현극의 전문가로 더 유명하다. 그는 대부분의 주말을 남북전쟁 격전지에서 보낸다. 우리가 그를 찾았던 주말엔 바로 그의 집 근처인 턴넬힐에서 벌어진 연 삼 일 동안의 재현전쟁터에 있었다. 2,000여 명의 남군, 북군 장병들이 모여, 1862년에 벌어졌던 턴넬힐 전

투'의 참상을 재현하는 리인액트먼트(reenactment). - 재현극. 그것은 단순한 상황의 재현이 아니라 과거로의 '시간여행'이었다. 온 가족이 19세기의 복장으로 차려입고 당시의 생활상 그대로 말투까지 재현해가면서 역사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살아보는 것. 켄이 직접 총연출한 이벤트였던 그 주말의 삼 일 동안 텃밭일은 더 이상 21세기가 아니었다. 19세기의 삶을 완벽하게 구현한 그들은 모두 이미 남북전쟁의 당사자였고, 또한 정통한 역사학자들이었다. 복장 하나하나, 구두에서 안경, 모자 심지어 단추의 모양까지 그리고 칫솔과 치약까지도 그 당시의 것을 그대로 만들어 사용해보면서, 책갈피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삶 속에서 과거의 역사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그들 조상들이 왜 남부동맹군으로 뭉쳐서 북부 양키를 상대로 싸워야 했는지를 직접 느껴보는 것이다. 죠지아는 텍사스랜드, 남부의 중심으로 아직도 당시에 그들 조상들이 가졌던 지역적 우월감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역전통이 뿌리깊은 곳이다. 그곳에서 켄과 그의 동료들은 전통적인 지역감정을 단순한 감정적 차원으로부터 끌어올려 역사적 당위성을 새롭게 찾는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지역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현실을 직시하는 계기로 삼고 있었다. 그곳에선 아직도 남북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과거를 사는 사람들

200년 전으로의 또 다른 '시간여행'. 이것 역시 넓은 땅, 미국이기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모든 현대문명을 거부한 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



을 찾아왔던 자기 조상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를 고수하며 사는 아미쉬. 펜실베이니아(펜의 '숲속의 낙원'이라는 뜻)주 랭카스터 지방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아미쉬들을 만났다. 그들과의 만남은 아주 쉽고도 어려웠다. 랭카스터의 시골길 어디에서나 마차와 함께 검정색 중절모를 쓴 아미쉬를 보는 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들 곁으로 다가가 카메라를 들이대면, 밝고 친절하게 반기던 그들의 얼굴은 이내 굳어지며 시선을 회피한다. 자신들만의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외부 세계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TV, 라디오, 신문 등 언론이나 문명의 이기와의 접촉은 그들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문명화된 미디어를 통해서 선 세상의 사악한 면들과 부정적인 이미지만이 쉽게 전해지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 또한 그것에 노출시키지 않겠다.

17세기 급진개혁 신교의 한 분파인 '스위스 Anabaptist'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아미쉬는 소박, 검소하게 살면서 종교적 공동체에 가치를 두고 개인주의적 생활을 금지해 지금까지 그들의 문화를 유지해올 수 있었다. 가정을 중시하고 전통적인 농업중심의 노동



을 중시하여 휴과 자연을 늘 가까이 하며 사는 그들에게 현대문명의 편의성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대학 등의 고등교육이나 기계의 사용으로 개인간의 차등이 생기고 공동체의 평등이 깨지는 걸 우려해 중세적 수준의 육체노동을 강조하는 그들이 현대문명의 중심 국가 미국 내에 존재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주의적인 아미쉬의 존재가 기독교국가인 미국이 현대 물질문명 속에서 점차 타락해가는 자신을 되돌아 볼 거울역할을 하는 건 아닐까.

신념에 따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미국을 안다는 것은 미국의 넓은 땅 덩어리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더구나 백 년 이상 지속되는 미국의 힘이 무엇인지를 찾아 한마디로 정의 내린다는 것은 그 넓은 땅 구석구석에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로 얘기하는 것 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닐지...

분명한 것은 평범한 미국인들이 자신의 일을 미친 듯이 즐기는 한, 그리고 아미쉬마을이 시간여행의 기회를 계속 줄 수 있는 한 미국은 영원히 그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SBS**

글/서유정, 송영세 · 「미국문화 대탐험」, 프로듀서

정오에 찾아가는 휴식같은 시간

LOVE FM 「허수경의 러브러브」

연출/박동주, 송경희, 진행/허수경, 매일 낮 12시 20분 방송



가끔은 눈물나게 슬픈 영화가 보고 싶고, 가끔은 가슴을 툭 치고 가는, 호흡이 긴 책 한 권을 단숨에 읽고 싶고, 가끔은 폭신한 소파에 반쯤 드러누워, 다리를 길게 쭉 펴고 편안한 음악 한곡을 듣고 싶을 때가 있다. 그것도 햇살이 반짝반짝 빛나는 따사로운 한 낮에….

정오에 찾아가는 「허수경의 러브러브」는 바로 그런 편안한 휴식같은 시간이다.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너무 화려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호들갑스럽지도 않은, 그렇지만 너무도 소박하면서 자꾸만 손길이 가는 그런 푸른 쪽빛 같은 느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한다. 한 낮의 느낌치곤 너무 조용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어쨌든 우리가 한낮에 들쭉거림에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고, 그래서 정오의 편안함이 무작정 생소하고 낯선 건지도 모르겠다. 마치 처음 가보는 여행지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약간은 허둥대는 것처럼. 하지만 낯선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숨겨진 보물창고를 하는 재미란, 경험해본 사람은 아마 다 알지 않을까. 그게 얼마나 신나고 설레이는 일인지를… SBS 글/김윤희 · 「허수경의 러브러브」작가

매일 코너 | 아이 러브 뉴스 _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짧고 유쾌하게 전해준다. / 런치 스페셜 닷컴 _ 먹고나면 살맛까지 나게 만드는 점심메뉴만 골라 전해준다. / 러브러브 돌발퀴즈 _ 상식의 키를 쏙 올려주는 퀴즈 집합소 / **오늘 같은 날** _ 눈물 한 방울 톡 떨어지게 만드는 사연 소개
요일별 코너 | **월요일** _ 조장혁의 별걸 다 아는 남자, 별걸 다 아는 여자 / **화요일** _ 여행스케치와 함께 하는 서랍 속의 사랑이야기 / **수요일** _ 사랑한다 말해요 / **목요일** _ 김광진의 사랑에 관한 해석남녀 / **금요일** _ 공자왈 맹자왈 / **토요일** _ 노래문장 만들기 · DJ 철이의 믹스맥 / **일요일** _ 명곡불멸 · 퀴즈탐험, 신인의 세계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상큼한 방송

POWER FM 「최화정의 파워타임」
연출/정태익, 진행/ 최화정, 매일 낮 12시 방송



레몬을 꼭 깨물면, 시큼한 물이 '씩' 나올 때, 한쪽 눈이 '질끈' 거러지는 것처럼, 순간의 화술로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그녀, 최화정. 그녀의 상큼하고 경쾌한 방송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에겐 그녀만의 화법이 있다. 조금은 알미운 듯, 톡 쏘는 일침이 있고, 잠시의 틈도 용납하지 않는 그녀만의 토크법.

그런 그녀가 주인이고, 만만치 않은 게스트들이 요일마다 굳건히 포진해 있는 「최화정의 파워타임」.

그렇다면 「최화정의 파워타임」이야말로 정말, 막강 파워를 자랑할만한, 자타가 공인하는 SBS FM의 간판 프로그램이 아니겠는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애정과, 어느 코너 하나 대충 넘어가는 일이 없는 열의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만의 끼를 가진 DJ, 그리고 그 모든 걸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스태프, 그들이 함께 하는 한 「최화정의 파워타임」에겐 앞으로 더욱 무궁무진한 미래가 있다. **SBS**

글/박현주 · 「최화정의 파워타임」 작가

매일 코너 | 흥경민의 호기심 왕국 _ TV에 「호기심 천국」이 있다면, 라디오엔 '흥경민의 호기심 왕국'이 있다! / **콩트** _ 청취자 사연을 재미있게 각색해서 소개 / **라이브는 계속 되어야한다**, **쭈우욱** _ 매일 한국씩 노래 부르기

요일별 코너 | **월요일** _ 여성전용 짬질방 / **화요일** _ 퍼니 & 토크 / **수요일** _ 쓱, 훑쳐보기 / **목요일** _ 쇼, 한마디 쇼 / **금요일** _ 제목은 없다 주제는 있다 / **토요일** _ 토요일경! 로맨스여, 영원하라~ / **일요일** _ 열두곡도 짧다 · 아무거나 넘버쓰리



sbs.co.kr 개편, 엔터테인먼트 요소 강화



sbs.co.kr이 12월 16일,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분야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본격적인 엔터테인먼트 포털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서비스되고 있는 TV, 라디오, 뉴스, 스포츠, 전자상거래 이외에 라이프와 교육, 여성, 골프 서비스가 추가되었고,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연예, 오락, 뮤직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별 콘텐츠를 강화하였다. 또한 독립된 채널로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각 콘텐츠 메뉴에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켰으며, 사용자 위주의 구성으로 개선하였다.

신설된 라이프 코너(life.sbs.co.kr)에서는 전문의의 상담과 건강, 병원 정보 등 총 20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메디컬 DB를 보유한 의료 전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콘텐츠를 보면, '생활 건강 및 질병 예방정보', 질병의 조기 진단을 비롯해 대학 교수들이 클리닉별로 토론을 거쳐 공동저작하고 공인된 최신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학정보 도서관',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는 '병원찾기', 자신의 건강관리에 적절한 건강클럽 및 뉴스를 고객 차트와 자동 연동시킨 '마이 페이지', '자기진단 서비스' 등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다.

연예, 오락 코너는 스타정보와 애니메이션, 만화, 운세, 공합, 카드 메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코너별로 정보와 동영상상을 접목해 재미를 더했으며, 네티즌의 취향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다. 기존의 뮤직파크를 개선하여 선보이는 '나도 DJ' 코너는 음악, 채팅, 동영상을 복합적으로 연결한 서비스이다. 네티즌들은 자신이 직접 DJ가 되어 음악을 선곡, 편성 및 진행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음악만 청취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상호간의 선호 음악을 선곡하고 공유할 수도 있다. 뮤

직을 서비스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가운데 관리자 권한으로 음악을 검색하고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것으로 SBS에서 최초로 선보이게 된 것이다.

SBS는 향후, 공중파 프로그램의 VOD 및 AOD 서비스에 국한된 인터넷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게임전문 채널을 비롯해 연극, 콘서트 등 각종 문화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문화 광장 코너,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미용에 관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사이트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멀티미디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SBSi 멤버십카드' 출시

SBS가 삼성카드와 공동으로 SBSi 멤버십 카드를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2001년 1월 1일 부터 공급한다.

SBSi 멤버십카드는 전국 2,000여 곳의 할인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삼성카드의 부가 서비스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다. SBS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SBSi와 삼성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SBSi는 카드회원에게 SBS 공개방송에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혜택을 비롯하여, SBSi 유료서비스 할인, SBS money 및 마이리지 부여, 유료 온라인 영화관 무료 이용 등 SBSi 자체 서비스와 더불어 미스터피자 10퍼센트 할인,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까지 제공하게 된다. 특히 여성에게는 SBSi의 뷰티 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을 주며, SBSi 뷰티 서비스를 이용시에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SBSi는 또한 만 18세 이상의 회원과 신용 평가 절차를 거쳐 승인된 회원에 한해서 SBSi 멤버십카드와 신용카드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SBSi 애니패스카드를 발급한다. SBSi 애니 패스카드는 SBSi 멤버십카드의 모든 혜택을 포함하여, 연간 SBS가 주최하는 이벤트의 초청 권과 신규개봉 영화 시사회 무료입장, 수도권 3대 놀이공원 무료입장, 프로스포츠 경기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여성에게 발급되는 SBSi 지엔미카드는 뷰티/모델아카데미 할인을 비롯해 전국 휘트니스센터, 헤어센터, 액세서리 전문점 이용시 할인혜택을 주고, 전국 주요 백화점 및 할인점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44개 개봉영화관에서 1,000원 할인 및 예약 서비스, 전문 레스토랑에서 식음료 무료제공 등의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SBSi는 이외에도 카드발급자 전원에게 삼성화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상해보험, 자녀안심 보험 등에 무료 가입시켜 주며, 향후 자체 부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회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BS 「여자만세」 PPL 오픈



인기리에 방영 중인 SBS 수목 드라마 「여자만세」에 등장하는 스타들의 소품과 의상을 판매하는 스타 PPL이 오픈했다. SBSi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buy6.com'은 「여자만세」의 드라마 이미지에 맞춰 '여자의 세상, 여자의 패션 갤러리'라는 주제로 채시라, 채림, 박소현 등의 의상을 주로 판매하고 있다. 채림이 선보인 다채로운 색깔의 니트 상품은 웹브라트12의 상품으로 현재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 중의 하나다. 또 채림 특유의 귀여운 캐릭터와 어울리는 G.street 494소품들도 판매를 준비 중이다. 채시라가 입고 나온 엘르스포츠의 의상과 박소현의 오브제, 미샤 의상도 인기를 끌고 있다.

SBSi, 한신정과 공동으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

SBSi는 한국신용정보주(대표:김창부)와 제휴를 맺고 sbs.co.kr 사이트를 통해 사용자 실명확인 및 개인 신용정보와 기업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SBSi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는 개인 및 기업의 신용정보를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BSi 회원 실명화를 통해서 회원 충성도의 제고 및 타겟 마케팅을 실현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개요를 보면 한국신용정보주와 매일경제가 연간 4회 발간하는 총 1,5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상장기업 분석정보를 비롯해 대출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개인 신용평점 조회 서비스, 채권추심정보 조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이 서비스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sbs.co.kr에 접속한 이용자는 각종 신용카드 개설 여부와 신용 불량 현황, 개인별 대출한도, 대출내역 등 본인의 신용에 관한 모든 정보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SBSi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용불량자 리스트에 오르거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대출 보증인으로 올라 있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서비스 기획 취지를 설명했다.

한국신용정보주는 1986년 설립되어 국내 우수 은행 및 신용카드사의 신용평점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으며, 상장기업, 코스닥기업, 제3시장을 포함한 약 1,350개의 기업 분석결과를 수록한 책자와 CD롬을 발간하고 있다.

SBSi, 550만 회원 2,000만 페이지뷰 돌파

SBSi 회원수가 12월 1일 550만을 돌파하고 하루 페이지뷰가 1,600만을 넘어섰다.

하루 동안 sbs.co.kr을 방문하는 사람수는 평균 500만에 이르며, 하루 평균 2만 5,000명이 지속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다. 최고 일일 방문자수는 700만이며, 이 수치로 유추해 볼 때 전체 인구 4,700만 가운데 약 1/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SBS 사이트를 하루에 방문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SBSi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용자 위주로 개편을 시작했으며, 기존의 독립된 채널로 편성하여 운영하던 인터넷 방송 서비스를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건강, 교육 등의 서비스에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 SBS 드라마와 라디오 페이지에 다시보기, 대본보기, 시청자 의견을 비롯해 동호회, PPL등을 연계해 콘텐츠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시청자 참여 코너와 이벤트를 대폭 늘였다. 11월 초 선보인 SBS 수목드라마 「여자 만세」 홈페이지의 경우 일일 평균 페이지뷰가 1만 정도이며, 이 프로그램 동호회인 'We live'에는 현재 250여 명이 가입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SBS 인기가요」의 경우, 시청자 의견 게시판만 해도 하루 평균 페이지뷰가 100만이 넘으며,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네티즌 투표에는 하루 평균 5만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있으며, 실시간 변화하는 투표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투표의 재미를 더한다. 라디오는 지난해 10월 대대적인 개편을 통해 라디오 포털로 단장한 이후, 'SBS 라디오 세상', '잠깐 보는 라디오 스튜디오' 등의 메뉴를 통해서 듣는 라디오가 아닌, 보는 라디오를 실현하였으며, MC들의 프로필, 축하메시지, 동호회 등을 통해 네티즌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코너를 대폭 확장했다. 라디오 게시판에도 하루 평균 5,000개에 이르는 시청자 의견과 신청곡들이 게재되고 있다. 이같은 분석 자료들은 SBS 프로그램들이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며, 타 방송사에 비해 월등히 높은 네티즌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SBS**

TELEVISION

CHANNEL 6

SBS

2001년 1월 5일 현재

AM

- 5:55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리얼 코리아
- 5:50 왕부리 텃코
- 6:15 드래곤 볼
- 6:45 @골뱅이
- 7:15 엔포 다큐 아는 것이 힘이다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9:55 월화드라마 루키
- 10:55 오픈 드라마 남과 여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골프



루 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AM

- 5:55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리얼 코리아
- 5:50 왕부리 텃코
- 6:15 드래곤 볼
- 6:45 @골뱅이
- 7:15 휴먼TV 아름다운 세상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9:55 월화드라마 루키
- 10:55 두 남자 쇼

AM

- 00:05 SBS 나이트라인
- 00:20 스포츠 와이드
- 00:35 SBS 스포츠 스페셜

AM

- 5:55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SBS 화재작 시리즈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용서

PM

- 4:00 마법의 섬 띠또 띠또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리얼 코리아
- 5:50 비스트위 네오
- 6:15 포켓 몬스터
- 6:45 @골뱅이
- 7:15 뮤직엔터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9:55 드라마 스페셜 순자
- 10:5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15 SBS 나이트라인
- 00:30 스포츠 와이드
- 00:45 SBS 스포츠 스페셜

Thursday

AM

- 5:55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실속 TV! 시선 집중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리얼 코리아
- 5:50 비스트워 네오
- 6:15 포켓 몬스터
- 6:45 @골뱅이
- 7:15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9:55 드라마 스페셜 순자
- 11:05 생방송 한밤의 TV연예

AM

- 00:15 SBS 나이트라인
- 00:10 스포츠 와이드
- 00:45 SBS 스포츠 스페셜



실속 TV! 시선 집중

Friday



@골뱅이

AM

- 5:55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도전! 퀴즈 퀸
- 9:30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10:40 뉴스와 생활경제
- 11:00 금요 컬처클럽
- 12:00 짱이와 깨모
- 12:10 정겨운 우리 가락

PM

- 4:00 마법의 섬 떠도 떠도
- 4:3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 5:00 SBS 뉴스퍼레이드
- 5:20 리얼 코리아
- 5:50 물은 생명이다
- 6:20 하얀 마음 백구
- 6:45 @골뱅이
- 7:15 이경실, 이성미의 진실게임
- 8:00 SBS 8 뉴스
- 8:40 오늘의 스포츠
- 8:45 일일드라마 자꾸만 보고 싶네
- 9:15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 9:55 기분 좋은 밤
- 10:55 영화특급

AM

- 00:35 SBS 나이트라인
- 00:50 스포츠 와이드
- 01:00 SBS 스포츠 스페셜

Saturday

AM

- 5:55 토요일집
-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30 아침연속극 용서
- 9:00 토요일 스타클럽
- 10:00 생방송 행복찾기(1부)
- 11:00 생방송 행복찾기(2부)



이홍렬 쇼

PM

- 12:00 SBS 뉴스
- 12:10 열린 TV 시청자세상
- 1:1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00 SBS 뉴스
- 4:10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스페셜
- 5:20 기쁜 우리 토요일
- 6:30 좋은 예감 즐거운 TV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50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
- 9:50 이홍렬 쇼
- 10:50 그것이 알고싶다
- 11:50 별난 행운 인생 대역전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 1:00 생방송! 토크넷 쇼

Sunday

AM

- 5:55 일요특집
-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1부)
- 6:3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2부)
- 7:10 생방송 출발! 모닝와이드(3부)
- 8:00 시사 포럼
- 8:50 도전! 1000곡
- 9:50 이휘재의 스포츠 대담형
- 10:50 좋은 친구들

PM

- 12:00 SBS 뉴스
- 12:10 접속! 무비 월드
- 1:00 스포츠 중계 또는 재방송
- 4:00 SBS 뉴스
- 4:10 생방송 SBS 인기가요
- 5:20 호기심 천국
- 6:30 뷰티풀 라이프
- 8:00 SBS 8 뉴스
- 8:35 오늘의 스포츠
- 8:50 주말극장 그래도 사랑해
- 9:50 메디컬 센터
- 10:50 뉴스 추적
- 11:30 남희석의 토크콘서트 색다른 밤

AM

- 00:50 SBS 나이트라인
- 1:00 특선 외화 시리즈



좋은 친구들

LOVE

FM 103.5MHz
AM 792KHz



2001년 1월 1일 현재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굿모닝 일본어
- 6:3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봉두원의 SBS 전망대
- 8:30 노성태의 경제레이다
- 8:45 명의에게 듣는다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 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 2:00 SBS 뉴스라인
- 2:20 송영길, 윤지영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20 방은희,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공효진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1:00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
- 2: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월~토요일 ▶ 05:00~07:00 매시 정각에 뉴스 ▶ 09: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일요일 ▶ 05:00~23:00 매시 정각에 뉴스

AM

- 5:00 뉴스
- 5:05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 6:00 뉴스
- 6:05 김재홍의 시인의 마을
- 7:00 아침 종합뉴스
- 7:10 이도학의 역사 기행
- 8:05 조정철의 자동차 25시
- 9:05 아름다운 세상 손숙, 배기완입니다
- 11:05 김천식의 세상속으로

PM

- 12:00 낮 종합뉴스
- 12:20 허수경의 러브 러브
- 2:00 SBS 뉴스라인
- 2:20 송영길, 윤지영의 한판 승부
- 4:05 김갑수의 책하고 놀자
- 5:05 문인숙의 노래 세상
- 6:05 방은희, 지석진의 라디오 데이트
- 8:00 SBS 8 뉴스(TV 수중계)
- 8:30 공효진의 나는 1035다
- 10:05 고수의 기쁜 우리 젊은 날

AM

- 00:00 서갑숙의 Love FM Love Music
- 2:00 Music Topia
- 4:00 쿵짝! 노래는 트롯트

「생명의 기적」, 2000 방송위원회 대상 수상

우리의 출산문화에 경종을 울리며 새 천년을 열었던 신년특집 다큐멘터리 「생명의 기적」이 구랍 18일에 있었던 2000 방송위원회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10대의 반란」은 방송위원회가 선정하는 '좋은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상'을 받았다.

「생명의 기적」은 잘못된 출산문화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산모와 태아 중심의 선진 출산문화 등 대안을 제시, 출산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다.

「생명의 기적」은 한국방송대상 대상을 비롯 휴스텐페스티벌 금상, 여성특별위원회 선정 남녀

평등방송상 최우수상, 제1회 평등미디어상 으뜸상, 제4회 가족문화상 등 국내외에서 수상하는 한편, 한 해를 결산하는 각종 순위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00 방송위원회 대상은 지난 한 해 동안 방송된 프로그램 중에서 방송위원회가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수상작 중에 선정, 시상했다.

노인 중심의 국내 첫 팬클럽 결성된**「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SBS LOVE FM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팬클럽 '청춘우정회'가 결성됐다.

구랍 17일 '청춘우정회' 창립대회에는 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한 청춘강령이 공표됐으며 회원들은 앞으로 노인의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봉사 우정행사를 펼치며 해외 노인단체와의 교류 등을 꾀할 것을 다짐했다. 새 노인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음은 언제나 청춘」의 애청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청춘우정회는 40대 후반부터 90세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노인 중심의 팬클럽은 국내 최초이다.

「유명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은 SBS AM 개국과 함께 방송되기 시작하여 지난 10년간 노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매일 새벽 5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고 있다.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 2:00 사운드 오브 뮤직

AM

- 5:00 태진아의 트로트 하이웨이
- 6:00 박영일의 파워 잉글리쉬
- 7:00 이숙영의 파워 FM
- 9:00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 11:00 심혜진의 시네 타운

PM

- 12:00 최화정의 파워타임
- 2:00 유정현의 2시 탈출
- 4:00 유영석의 뮤직사이트
- 6:00 박소현의 러브게임
- 8:00 이지훈의 영스트리트
- 10:00 김동완의 텐! 텐! 클럽

AM

- 00:00 정지영의 스위트 뮤직 박스
- 2:00 사운드 오브 뮤직

F M

POWER
107.7MHz

SBS

2001년 1월 1일 현재

심금을 울리는 사랑과 우정의 휴먼 드라마 ‘무너진 사랑탑아!’

일제시대 젊은 남녀의 사랑과 배반, 그리고 진한 우정을 그린 약곡 '무너진 사랑탑아!'가 SBS, 극단 가교, 예술의 전당 공동주최로 공연된다.

최고의 약곡 배우 최주봉, 윤문식, 박인환, 김진태, 양재성, 박승태, 김주승, 박상아의 구성된 노래와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선보일 약곡 '무너진 사랑탑아!'는 돈과 명예 앞에 휴지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져버린 사랑과 우정의 소중함을 다룬 휴먼 드라마로 보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전한다.

국내 최고 베테랑 출연자들의 맛깔스런 대사와 노련한 연기력으로 장면마다 쏟아지는 폭소와 그들이 펼치는 구성진 음식의 흘러간 노랫가락이 그 옛날 천막극장에서의 아련한 추억을 떠올리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정을 맞아 화려하게 펼쳐질 약곡 '무너진 사랑탑아!' 공연은 특히 최고의 효도선물로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일정 : 2001년 1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 · 평일 : 오후 4시, 7시 30분 · 주말, 휴일 : 오후 3시, 6시 30분 (월요일은 공연 없음, 총 34회 공연)
 공연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 요금 : R석_40,000원, S석_35,000원, A석_25,000원, B석_20,000원
 전화예매 : 1588-7890, 02-369-1571 / 공연문의 : 02-369-2913



channel 6

이달의 SBS 영화 특급 | 금요일 밤 10시 55분 방송



나인 먼스 (NINE MONTHS)

감독/크리스 콜럼버스, 주연/휴 그랜트, 줄리안 무어
방송/1월 5일 · 담당PD/조희수

사무엘 포크너(휴 그랜트 분)는 절대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남자. 그런데 애인 레베카(줄리안 무어 분)는 그의 아이를 낳고 싶어한다. 어느 날 임신했다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라는 사무엘. 며칠 후 사무엘의 무관심 때문에 그녀는 떠나고 빈 집에 앉아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던 사무엘은 아이에 대한 무성애를 느끼는데...

패시저57 (PASSENGER57)

감독/케빈 홀스, 주연/웨슬리 스나입스, 브루스 페인
방송/1월 12일 · 담당PD/김박

여객기 보안훈련 교관인 존 커터(웨슬리 스나입스 분)는 옛 동료의 제의로 항공사 테러전담 책임자로 고용된다. 커터는 로스앤젤레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패시저57(57번 좌석 탑승객)'로 비행기에 타는데, 이 비행기에는 체포된 국제 테러조직의 두목 찰스 레인(브루스 페인 분)이 LA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동승하고 레인의 부하들이 비행기를 공중 납치하는데...



취권 2 (醉券 II: DRUNKEN MASTER II)

감독/유가람, 주연/성룡, 적룡, 유덕화, 매염방
방송/1월 19일 · 담당PD/김하정

청나라 말의 어느 겨울, 보지림의 황기영 사부 외아들이인 비홍(성룡 분)은 장춘역 세관에 서 인삼에 부과되는 세금을 포탈하려고 인삼을 영국 영사 집 속에 교묘히 감춘다. 기차 안에서 기회를 엿봐 영국 영사의 집 속에 감춰둔 인삼을 꺼내려 갔던 비홍은 마침 만주 최후의 무인인 복민기와 부딪쳐 대결을 벌인다. 복민기는 영국 영사가 빼돌린 중국 황제의 옥쇄를 되찾기 위해 왔다가 비홍과 대결을 벌이는데 그 와중에 비홍의 인삼과 옥쇄가 바뀌고 마는데...

컨스피라시 (CONSPIRACY THEORY)

감독/리처드 도너, 주연/멜 깁슨, 줄리아 로버츠
방송/1월 26일 · 담당PD/김박

뉴욕의 평범한 택시기사 제리 플라체멜 깁슨 분)는 알 수 없는 과거의 기억에 시달리며 살아간다. 그는 손님들에게 베트남전쟁, 우주선 발사와 지진의 연관 관계 등 각종 음모에 관해 얘기한다. 엘리스(줄리아 로버츠 분)를 짝사랑 하는 제리는 자신의 가설과 증거자료를 챙겨 여러차례 그녀를 찾아가지만 문전박대당한다. 차츰 엘리스가 제리의 이상한 가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무엇인가에 끊임없이 쫓기기 시작하는데...



누가 노인을 늙었다고 했는가?

지난 12월 17일 평화로운 일요일에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노인 팬 클럽이 결성되는 날, 이름하여 '유영미의 청춘 우정회'.

여의도에서 보면 아주 먼 구석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조출한 홀.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의 예의 부지런함은 여전하셨다. 진행 1시간 전부터 벌써 홀을 가득 메우고 계셨다. 300여 분도 넘는 인원이었다. 으악! 이거 비좁아서 큰일이네, 벌써부터 차고 넘치다니...

그날 난 'SBS 유영미' 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 드렸다. 매일 방송을 들으셔도 라디오니까 내 모습을 상상으로만 그려보셨겠지...

"아니 그 종달새 같은 목소리의 유영미 아나운서가 이렇게 생겼네! 히히히, 호호호."

"네, 고맙습니다. 어르신 제가 요렇게 생겼어요, 헤헤헤..."

부친의 왕 팬 김선산 어르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10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청춘 열차의 첫차' 를 타신 그 정성과 사랑에 우리 스테프진은 무릎을 꿇었다. 일흔 아홉 되신 연세에 10년 애청자 경륜을 가져 5년 이하의 팬들을 아예 어린 사람 취급을 하신다. 당연히 그곳에선 그것이 법이었다. 그러나 군용할거의 춘추전국 지역대표를 천호동에서 '유영미의 청춘 우정회' 로 천하통일한 송병용 어르신께는 감사를 표하신다. 그것도 참! 알 수 없네...

'우정회' 는 '청춘-팬클럽' 이자 친목단체며 21세기에 새롭게 시작되는 건강한 노인방송문화다. 10년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내용의 방송을 들으시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신 어르신들!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노인들을 돕자는 우정의 행사, 매스컴을 가장 가까이 하시는데도 오히려 그 매스컴에 의해 왜곡되고 소외되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시겠다는 결의들이 정말 멋지시다.

"우리는 사회의 어른으로서 인생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세월과 함께 더욱 더 성숙, 성장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아름다운 인생을 꾸꾸는 노년의 모습을 늘 자각하며..." '청춘 강령' 의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청춘 우정회', 그곳에는 노인은 없고 청년들만이 모여 있었고, 나는 점점 더 신이 났다. "아! 나도 이제 외로움을 끝이야! 노인청년들 만세!, '청춘 우정회' 만만세!"

그러자 그날 역지로 카메라맨 역할을 담당한 남편이 말했다. "유영미 씨, 이제 시작이야..." SBS

글/유영미 · SBS LOVE FM '유영미의 마음은 언제나 청춘' 진행자

